



## “Simple Life, High Thinking”

### 평생 장서 군포시립도서관에 기증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지난해 연말 일간지에 한 퇴임 교수의 공공도서관 장서 기증 소식이 소개되었다. 주인공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로 그는 1970-80년대 청년학생들에겐 '사상의 은인' 이었고, 맹목적 반공권력자들에게 '의식화의 원흉' 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손꼽혀 온 리영희 교수를 경기도 산본 자택에서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Q** 도서관은 사회적 집단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선생님의 책을 소장하게 된 군포시립도서관은 더욱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로 장서를 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셨는지요?

**A** 군포시립도서관에 기증한 장서는 주로 조선과 일제시대, 해방 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관련 분야의 책들입니다. 국제, 군사, 정치, 한미관계, 민족(남북), 동북아 지역, 후진국 관련 장서는 평화연구소로, 시, 소설은 문학애호가에게, 중국현대사 및 혁명 관련 자료는 대학 중국학과 교수에게 각 각 기증하였습니다.

도서관에는 800여책 정도 기증하였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 400여책을 선별하여 자료실 한켠에 내 개인 문고를 만들어 주었더군요. 도서관 장서 수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직 기증하지 못한 문학회론 관련 책들은 수리산 밑에 2007년쯤 들어설 신축 도서관에 마저 기증하려 합니다.

그 책들은 예전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껴가며 어렵게 구한 서적이고, 나와 친분이나 교류가 있는 지인들이 선물로 준 책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그릇을 모으고,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는 소중하게 모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적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좋아하는 후학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끼고 있는 물욕(物慾)은 선비의 마음이 아닙니다.

**Q** 군포시립도서관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우선 내 분야의 책이라는 것이 몇 백 년 전의 희귀본이 아니라 대부분 이론서적이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있는 책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내 회고록을 보면 알겠지만 과거 재직했던 대학과는 특별히 정(情)적인 교감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분야에 좀 더 많은 책들이 있었다면 대학도서관에 기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0년 전 이곳 군포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사를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정열과 문화관에 공감했습니다.

**Q**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마치 실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예상치는 못하겠지만 인류의 생존 방식, 인생관, 세계관은 늘 변합니다. 현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물리적 이익을 내야 하는 시대로 글 쓰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거의 우리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기계를 사용해서 쓰고 또 그것을 몇 천 몇 만 장씩 복사해내더군요. 손으로 써서 손으로 만들던 우리 시대 또는 그 이

전의 것 쓰고 붓으로 글 쓰던 시대와는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계로 글을 쓸 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해당되는 것 쪽 빼서 짜깁기하고 말더군요. 나 같은 경우 글을 쓸 때나 읽을 때나 내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죽해서 자신의 누룩을 가미해서 발효시켜, 완전히 내 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겠지만 도서관과 사서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우상과 이성』(1977) 머리말에서

李泳禧

1929년 출생. 1950년 한국해양대학 졸업.  
1950-1957 군 복무. 1957-1964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1964-1971 조선일보와 합동통신 외신부장 역임. 1972년부터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겸 중국문제연구소(이후 중소문제연구소) 연구 교수로 재직 중 박정희정권에 의해 1976년 해직되어 1980년 3월 복직되었으나, 그 해 여름 전두환정권에 의해 다시 해직되었다가 1984년 가을에 복직. 1995년 한양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1999년까지 동대학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역임.  
저은 책으로 『전환시대의 논리』(1974), 『우상과 이성』(1977), 『분단을 넘어서』(1984), 『80년대의 국제정세와 한반도』(1984), 『베트남전쟁』(1985), 『역설의 변증』(1987), 『역정』(1988), 『自由人, 자유인』(1990), 『인간만사 새옹지마』(1991),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1994), 『스핑크스의 코』(1998), 『대화』(2005)와 편역서로 『8억인과의 대화』(1977), 『중국백서』(1982), 『10억인의 나라』(1983)가 있다.

interview



interview

◀ 군포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한켠에 마련된 '리영희 교수 기증문고 서가'. 대부분의 분류 번호가 300번, 900번대로 국제, 군사문제와 정치와 관련된 기증자의 지적 세계를 짐작케 한다.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런 문제들을 대해 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 함은 다양한 사상이 만나야 하는 곳인데 지적, 정신적 야만시대였던 1970-1980년대 '금서 사건'이 있었을 당시 도서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점도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도서관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주신다면..

**A** 해방 이후 해양대학 재학 시절에는 주로 학교도서관을 애용했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만들면서 한꺼번에 쏟아진 일제시대에 출간됐던 좋은 도서가 많이 구입되었는데 처음 보는 일본·영국·미국·불란서 등의 원판 서적들과 그 밖의 수준 높은 책을 목마른 자라 샘을 찾은 듯이 정신 없이 읽었지요.

그러나 사회에 나와 기자, 교수로 있으면서는 평범한 자료가 아닌 구하기 힘든 책들을 주로 읽었던 탓에 도서관이 아닌 다른 루트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최근 회고록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도서관과 서점을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서울에는 그 당시 변변한 2층 건물의 서점도 없을 때인데, 일본 서점들은 5-6층이 넘는 큰 빌딩에 수십만 권의 책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지적 연구와 축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새삼 공부하고 연구할 주제가 남아 있겠는가 하는 열등의식이 들더라고.

**Q** 끝으로 요즘은 주로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신지와 인생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는 일제 강점기 시절 교육을 받은 탓에 일본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도 지난 40년간 되풀이해서 읽고 있는 일본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발행한 『現

代의神話(현대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개인과 이를 지배하는 계급에 관련된 이론, 철학서로 인간의 해방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나이 들어 훌륭한 사람인 듯 도덕적으로 훈화하듯이 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다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말할 수 있겠지요. 나는 물질적으로 검소하고 정신적으로 고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Simple Life, High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것 많이 사다 놓고 쫓아다니고 하다보면 인간이 추해집니다. 보다 곁걸하고 내면적으로 충일(充溢)하여 자기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철학적 깨달음이 바로 힘입니다.

**Q** "앞으로의 남은 역할은 내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뿐이라는" 선생님의 소망을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실 터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 고맙습니다. 

